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28.(월) 12:00
(지 면) 2026. 9. 29.(화) 조간

AI 정부 사절단, BSEC 회원국과 공공 혁신의 미래 논의

- 행안부, 9월 29일(화)~10월 4일(일) 루마니아·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 파견
- 9월 30일(수) 루마니아, 10월 2일(금) 조지아에서 각각 ‘AI 정부 정책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회원국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9일(화)부터 10월 4일(일)까지 루마니아와 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 BSEC(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된 지역경제협력기구

이번 사절단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을 단장으로,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관계 기관과 외교부가 함께 참여해 구성된다.

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BSEC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혁신의 방향과 향후 협력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 루마니아와 조지아에서 AI 정부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협력 기반 구축

먼저 AI 정부 사절단은 9월 30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루마니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특히 한국의 ▲국

가 AI 정책 ▲지방정부의 AI 활용 및 지역정보화 ▲디지털 ID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등 주요 인공지능(AI)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루마니아 정부에 소개한다.

이어 10월 2일에는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해 조지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한국-조지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과 공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ID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9월 8일 조지아 법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2026~2028년) 조지아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사절단 파견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가치 확산 주도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

행안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방문국 정부의 정책 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정부 정책과 공공서비스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본사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ID 및 관세 시스템 등 공공 분야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해외에 적극 공유해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AI 정부 사절단 파견은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정부와의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AI 3대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혜선 (044-205-2781)
		담당자	사무관	최태라 (044-205-2787)

